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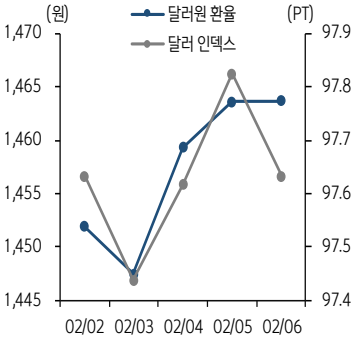
2026-02-09

굴곡진 금은동 메달 레이스

FX Talk & Insight : 금주 1,450~1,480원 전망

미국 연준 차기 의장 지명에 시장이 적응할 무렵, AI발(發) 소프트웨어 위기론이 시장을 급습하면서 그간 크게 가격 상승한 위험자산 중심으로 매도 압력에 노출. 2월로 넘어오며 달러화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상승한 배경. 다시 한미간 무역협상이 난항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총선 결과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의 압승으로 끝나며 엔화 약세 압력이 원화에도 부담 전가할 소지. 쉽지 않은 미국과 이란 핵 협상 결과 및 11일 확인될 올해 첫 美 인플레이션(CPI) 향방도 지켜볼 변수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50	1480
달러엔	156.5	159.0
유로달러	1.173	1.188

한국이 금메달 3개 이상을 노리는 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명예로운 메달의 가치를 감히 돈으로 매길 수 없지만 '금메달 가격은 얼마나 될까'하는 불순한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금메달에는 약 6g의 순금이 들어가 있고, 지난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당시 금은동 메달은 대략 120만원, 70만원, 6천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2~3배 치솟은 금과 은 가격을 생각하면 제작비도 크게 올랐을 것이다. 그나마 메달 종목이 적은 동계 올림픽이니 망정이지 만일 하계 올림픽이었으면 이탈리아 정부는 메달 제작에만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산신령도 금은동 도끼를 불쌍한 나무꾼에게 쉽사리 내어주지 않을 판이다.

물론 기존 후보자군 내에서 상대적 매파로 인식되던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을 받자 금은 가격이 급락하며 버블 붕괴 경계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은 가격이 오른 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는 국면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여기저기 쑤셔대는 트럼프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기도 했고, 달러 약세에 대한 반작용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 증가 등 안전 자산으로서의 귀금속 수요도 커진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구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금과 은도 AI 시대에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아졌다. 사실 금과 은 가격이 급등했다 해도 지난 1년간 20배 오른 반도체(DDR4 8Gb 기준) 가격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어쩌면 금은 가격 상승은 '트럼프-AI 시대'를 대변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통은 당연히 소비자가 떠 앉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데 예비 신랑신부들이 시계와 반지를 사면 쉽게 텅장이 될 것 같다. 새 학기를 맞은 아이들이 최신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면 아빠들은 와이프 몰래 숨겨 둔 비상금을 털어야 할 듯하다. 비록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같은 막강한 파괴력은 아니더라도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소비재 가격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연준 이사 임기 시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인 워시와 맞물려 미국 물가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워시를 매파로 매도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다. QE 축소와 금리인하라는 생소한 조합으로 다소간의 혼돈을 야기할 소지는 분명 있지만, 적어도 파월보다는 親트럼프-비둘기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그의 최근 언급들을 따라가보면 결국 기술진보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물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방만하게 풀면 안되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금리인하도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워시가 구상하는 통화정책 승패는 향후 안정적인 물가 시현 여부에 달린 셈이다.

한국 대표단의 선전을 편안히 응원하면 좋겠지만, 각종 고용과 더불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내심 껄끄럽다. 1월 CPI에 앞서 발표된 12월 PPI는 전월비 0.5% 오르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더구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PI는 지난달보다 0.7%나 오른바 있다. 시장에서는 CPI가 전월비 0.3%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를 상회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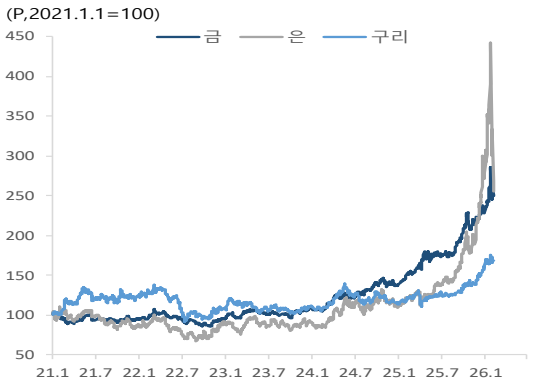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굴곡진 금은동 메달 레이스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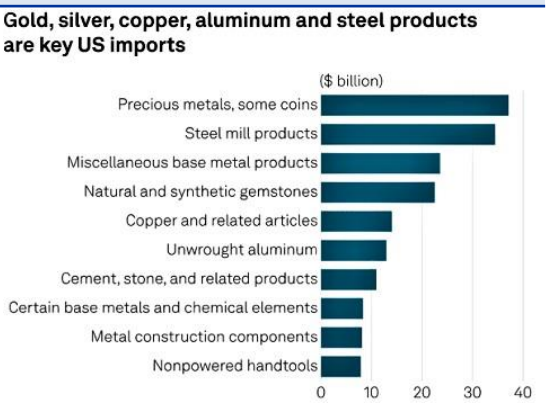
워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공 행진하던 금 및 은 가격 폭락. 상승 추세선이 붕괴된 단계는 아니나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과격하게 진행

달러 약세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및 AI 관련 수요 등이 금은 가격을 견인.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 높아 갈등관계는 부담

워시 지명 이후 롤러코스터 터는 귀금속 가격



캐나다, 중국 등에 의존하는 미국의 관련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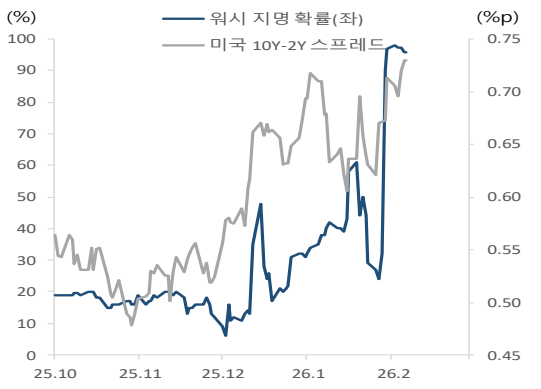


자료 : S&P Global,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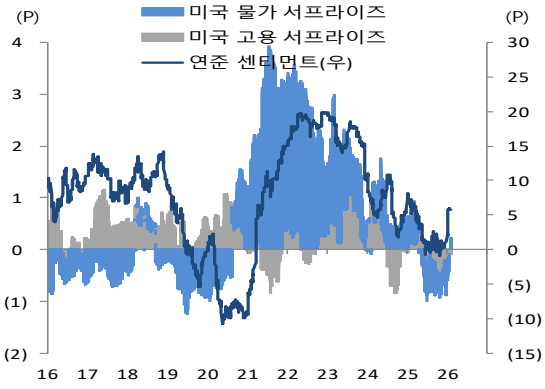
위시의 QE 축소와 금리인하라는 낯선 조합에 대한 불안감 표출. 하지만 기술 혁신에 따른 고성장-저물가 궤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 시사

워시에 대한 매파 인식은 다소 이른 듯하나 친트럼프 성향으로 연준의 독립성 문제는 불가피.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연준내 보수적 행보 자극

장기금리가 워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



물가와 고용 앞두고 다소 보수적인 연준 스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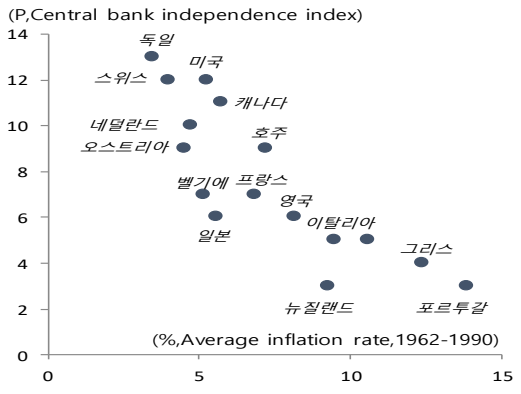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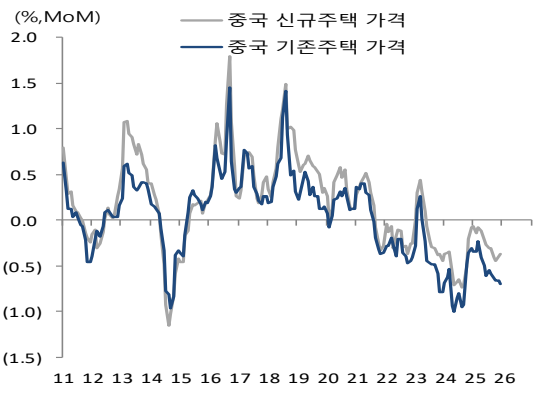
워시는 인플레 파이터 성향 잠재해 있고 독립성을 사수하려는 연준 인사들로 인해 물가의 민감도 커질 듯. PPI에 이어 CPI 상승시 부담 노출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결과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지표들도 대기. 물가 여전히 낮은 수준 아래 부동산 시장의 부진 장기화가 걸림돌

중앙은행 독립성과 물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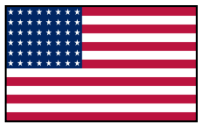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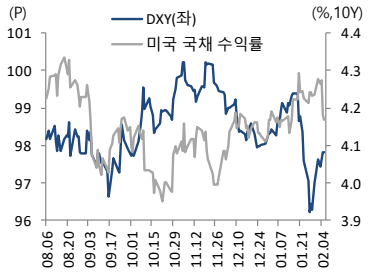
자료 : IMF,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굴곡진 금은동 메달 레이스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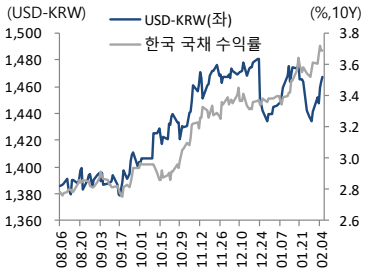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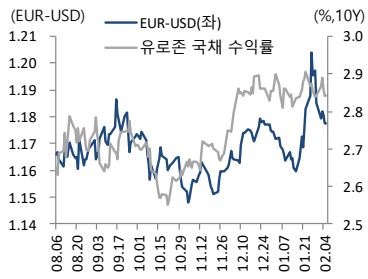
리뷰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로 인식되는 워시가 지명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며 달러 반등. 귀금속 가격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 실적 발표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감 커진 점도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를 자극하는 데 일조
프리뷰	위험자산의 변동성 커진 가운데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본 총선, 이란 협상 등 이벤트 대기해 있어 조심스러운 행보 이어질 듯. 여기에 연준 독립성과 맞물려 고용과 물가 지표에 민감해질 가능성. 만일 CPI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변동성 확대 소지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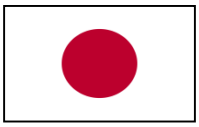


리뷰	美 연준 차기 의장 지명 여파가 이어진 주초에 환율 상승한 뒤 하루만에 안정. 하지만 2월 3일 Anthropic이 내놓은 법률 서비스 앱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충격 안기며 그간 레버리지 발판으로 급등한 코스피까지 충격 전가되자 주 후반 환율이 1,470원 상향 돌파
프리뷰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Anthropic이 던진 파장이 자산시장을 흔드는 상황. 특히 그간 상승 과정에 레버리지 낀 코스피 탓에 원화가 취약한데, 일본 변수에도 노출. 2월 8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 시 엔화 약세 심화되며 달러원 환율도 상승 압력에 시달릴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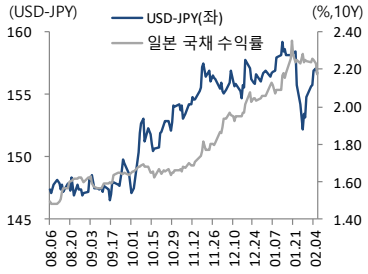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1월 27일에 정점을 찍은 이후 대폭 하락했던 유로화가 2월 들어 하락 속도는 둔화됐지만 완만하게 추가 하락하며 주 후반에는 1.18 하회. Anthropic의 법률·금융 서비스 앱 출시가 자산시장을 흔들며 위험자산 하락하며 달러화가 상승한 여파
프리뷰	미국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약세가 더해지며 유로화가 추가 하락했지만, 하락세 진정되고 있어 하단 지지되며 반등할 시점이 다가온 듯. 다만, 당장은 유럽 경제 모멘텀이 없어, 외부 환경과 달러화 향방에 달린 문제



USD-JPY(일본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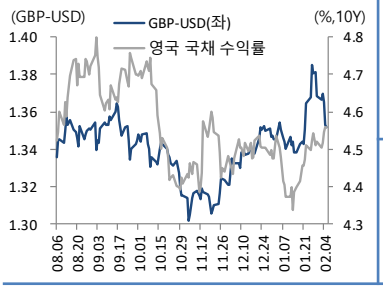
리뷰	1월 27일을 기점으로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한 데다, 이번 주에는 2월 8일 일본 총선 앞두고 자민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엔화 약세까지 가세. 다만 2월 5일 환율이 157엔 일시 상회한 뒤에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소폭 후퇴
프리뷰	2월 8일 일본 총선 결과에 단기적 반응 커질 듯. 압도적 승리 거두면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탄력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엔화 부담 커지며 환율 상승 초래할 전망.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나 미국과 공조 형태는 아닐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굴곡진 금은동 메달 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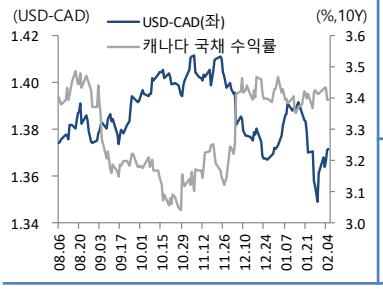
FX Navigator

GBP-USD(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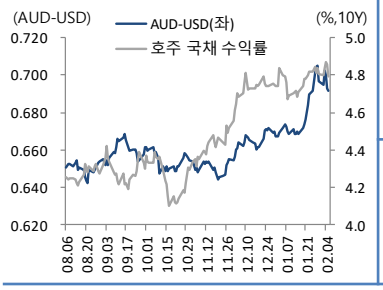
리뷰	1월 27일을 기점으로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하면서 GBP도 유로화와 함께 하락세 지속. 미국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Anthropic의 법률·금융 앱 출시가 자산시장을 흔든 데다, 2월 5일에는 BOE가 5대4로 동결한 것이 3월 금리 인하 기대 높이며 GBP 추가 하락
프리뷰	미국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약세 더해지며 GBP가 추가 하락했지만, 하락세는 진정될 조짐. 다만, 최근 영국 스타머 총리 입지가 다소 흔들리는 데다 당장은 영국 경제 모멘텀이 없어, 외부 환경과 달러화 향방에 달린 문제

USD-CAD(캐나다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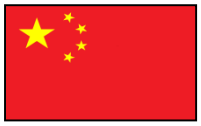
리뷰	1월 말 한때 1.35 하회했던 환율이 광범위한 USD 강세로 급반등하여 이번 주에는 1.37 상향 돌파. 그러나, 원자재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제한되면서 비교적 CAD 약세폭은 제한. 캐나다는 미국 전투기 구매 계획 취소 검토하는 등 불편한 관계는 지속
프리뷰	최근 미국 연준 차기 의장 지명 및 미국 기술주 및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의 매도세로 USD가 반등했으나, 주말을 지나며 진정될 소지 존재. 2월 6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2월 둘째주 CAD에도 방향성 제공할 듯. 사안의 중대성 감안시, 합의 및 환율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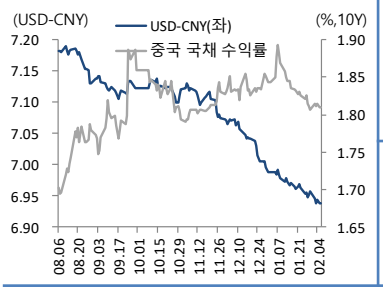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AUD 상승세가 1월 29일 멈추며 하락 전환해 6일 한때 0.69 하회. 그러나, 해당 기간의 광범위한 USD 강세 및 위험자산 약세 흐름 속에도 원자재 통화인 AUD 약세는 제한. 2월 3일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AUD를 지지했던 이벤트
프리뷰	최근 위험자산 약세로 인해 외환시장의 대표적 risk barometer인 AUD가 하락했으나, 점차 하락 진정되며 반등 모색할 듯.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를 노린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로 원자재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며 AUD에 순풍으로 작용.

USD-CNY(중국 위안)





리뷰	1월 말부터 달러화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강세 속도가 둔화된 정도. 특히 2월 2일에는 Financial Times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작년 공산당 학술지를 통해 위안화 기축통화 지위 목표를 제시한 것이 위안화 강세에 기여
프리뷰	중국과 서방의 공급망 분리 추세가 핵심 광물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막대한 무역 흑자를 업고 장기적으로는 기축통화 지위를 위해 중국이 야심찬 계획 드러내면서 위안화의 장기적 강세 가능성 상승. 내수 부진과 별도로, 완만하고 꾸준한 위안화 강세 예상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굴곡진 금은동 메달 레이스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2/09-2/14/2026	CH	통화공급 M2 전년비	Jan	8.30%	8.50%	84
2-10-2026 9:30	AU	NAB 경기기대지수	Jan	--	3	73
2-10-2026 20:00	US	NFIB 소기업 낙관지수	Jan	99.5	99.5	62
2-10-2026 22:30	US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Dec	--	0.00%	79
2-10-2026 22:30	US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Dec	0.50%	0.60%	94
2-11-2026 8:00	SK	실업률 SA	Jan	--	4.00%	87
2-11-2026 10:30	CH	PPI 전년비	Jan	-1.60%	-1.90%	90
2-11-2026 10:30	CH	CPI (전년대비)	Jan	0.30%	0.80%	98
2-11-2026 22:30	US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Jan	71k	50k	99
2-11-2026 22:30	US	실업률	Jan	4.40%	4.40%	89
2-12-2026 4:00	US	Federal Budget Balance	Jan	--	-$144.7b	75
2-13-2026 0:00	US	기존주택매매	Jan	4.24m	4.35m	87
2-13-2026 19:00	EC	GDP SA (전기대비)	4Q S	--	0.30%	90
2-13-2026 22:30	US	CPI (전월대비)	Jan	0.30%	0.30%	97
2-13-2026 22:30	US	Core CPI MoM	Jan	0.30%	0.20%	78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72.7	212.2
고가	1,475.3	212.5
저가	1,462.6	211.4
종가[1)]	1,469.5	211.7
전일비	0.5	0.2
평균환율	1,470.3	211.8
NDF(1M)	1,463.7	
거래량	197(억불)	392(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63.65	4.35
JPY/KRW	931.88	-1.31
EUR/KRW	1,728.64	6.75
GBP/KRW	1,992.12	12.08
AUD/KRW	1,026.47	12.89
CAD/KRW	1,070.14	2.73
USD/JPY	157.22	0.18
EUR/USD	1.1815	0.0038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2.955	0.039	2.410	-0.01
2Y	3.187	0.043	2.710	0.00
3Y	3.324	0.035	2.880	0.00
4Y	3.411	0.031	2.995	0.02
5Y	3.471	0.028	3.090	0.01
7Y	3.559	0.032	3.115	0.01
10Y	3.623	0.034	3.075	0.01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78	+0.03
통안 1년	2.68	+0.01
통안 2년	3.13	+0.03
국고채 3년	3.24	+0.04
국고채 5년	3.53	+0.03
국고채 10년	3.72	+0.02
국고채선물(3년)	104.68	+0.03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42	-8.00	2.40%
3M	-465	-10.00	2.32%
6M	-900	-10.00	2.37%
1Y	-1,518	52.00	2.42%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43	-0.046	3.44	-0.055
2Y	3.50	-0.056	3.33	-0.062
3Y	3.57	-0.062	3.36	-0.065
5Y	3.76	-0.071	3.48	-0.069
10Y	4.21	-0.067	3.80	-0.073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5,089.14	-74.43	-1.44%
미국 DOW	50,115.67	+1,206.95	+2.47%
중국 상해종합	4,065.58	-10.33	-0.25%
일본 NIKKEI 225	54,253.68	+435.64	+0.81%
영국 FTSE 100	10,369.75	+60.53	+0.59%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3.55	+0.26
금 (선물)	4,951.20	+30.80
3M TERM SOFR	3.64	-0.02
3M EURIBOR	2.00	-0.02
KOR 5Y CDS	21.82	+0.40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